'칠레 해안지역 가장 우수한 와이너리 선정'

레이다 코스탈 빈야드 팔라리스 힐 샤르도네

Leyda Coastal Vineyard Falaris Hill Chardonnay

지역	칠레 〉 아콩카구아 〉 샌 안토니오		
포도품종	샤르도네 100%		
알코올	14%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7-10℃		
테이스팅 노트	옅은 옐로우 컬러를 지녔으며, 레몬, 라임 등 시트러스의 지배적인 풍미와 함께 오렌지 껍질, 흰꽃, 프렌치 오크 숙성에서 기인한 아몬드 풍미가 와인에 복합미를 더한다		
페어링 TIP	익힌 해산물 / 생 해산물 / 흰 살 생선 / 익힌 채소		

당도	DRY					SWEET	바디	LIGHT				FULL
	1	2	3	4	5			1	2	3	4	5

제품설명

싱글빈야드 레인지는 레이다 밸리의 떼루아를 대표하는 와인으로 엄선된 구획의 단일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만을 사용하여 각각의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보다 우아하고 복합미가 뛰어난 와인으로 탄생된다.

3월 16일에서 28일 사이, 포도가 22.8-23.5 Brix에 도달하였을때 손수확 진행되며, 최상급의 포도만 선별하여 양조 진행한다. 송이째 낮은 기압으로 압착을 진행하며 콘크리트와 프랜치 오크 배럴에서 16-17개월간 발효를 진행한다. 배럴에서 발효한 와인은 와인의 풍부한 볼륨감과 크리미한 질감을 부여하며 콘크리트 발효 진행한 원액은 미네랄리티와 생동감과 과일의 순수함을 부여한다. 두 개의 다른 발효조에서 발효를 진행하고 블랜딩함으로 인하여 스파이시한 노트와 입 안에서 훌륭한 구조감을 선사해준다.

수상내역

2022빈티지 데스콜차도스 Descorchados 93점
2022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2점
2022빈티지 팀 아킨 Tim Atkins 93점

와이너리

1998년 "레이다 밸리"에 설립된 레이다 와이너리는 오늘날 현대 칠레와인의 혁신의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매우 건조한 레이다 밸리는 포도를 재배할 수 없는 곳이었으나 이 지역의 잠재된 가능성을 확신한 레이다 와이너리는 마이포강으로부터 8km에 이르는 수송관을 건설하는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이 지역 최초의 포도원을 조성하며, 새로운 프리미엄 재배지를 개척했다.
레이다 와이너리의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인정받아 2002년 5월 드디어 칠레 정부에서는 와이너리 이름을 넣어 '레이다 밸리'라는 D.O.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오늘날 서늘한 기후(Cool Climate)의 특급 프리미엄 와인을 대표하는 산지로 칠레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존과 차별화 되는 새로운 스타일의 피노 누아 및 화이트 와인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레이다 와이너리는 세계적인 주류 전문지 'Drink International'에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50대 와이너리'에 2013년, 2014년 2년 연속 선정되면서 세계무대에서도 그 진가를 인정받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